

#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19년 제4차 여성가족분과 회의록(4월)

<b>일 시</b>	2019. 4. 30.(화) 14:00 ~ 18:00	<b>기록</b>	임복희	<b>확인</b>	신필교, 조여옥	
<b>장 소</b>	경기도여성비전센터					
<b>참석자</b>	<b>총 19명중 10명 참석 (참여율 52.6% - 관 0/3, 민 10/16)</b>					
	신필교	여성정책과 여성정책팀장	×	박재규	수원시여성문화공간 휴 센터장	○
	조여옥	수원시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	○	오정하	수원시가족여성회관 팀장	○
	김미옥	수원시여성의심터 원장	○	윤경숙	여성친화팀 주무관	×
	김정숙	고운뜰 원장	○	이영안	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	×
	김민주	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 팀장	×	김소현	여성정책과 건강가정팀 주무관	×
	전영임	영통종합사회복지관 팀장	○	조경희	가톨릭여성의집 시설장	○
	박성희	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	○	최옥순	늘품상담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	×
	박윤선	수원가정법률상담소부설 가정폭력상담소 대표	×	마소현	수원여성의전화 사무처장	×
	곽금	여성긴급전화 1366경기센터장	×	서주애	수원여성회 사무국장	○
김경이	수원YWCA 책임간사	○	임복희	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팀장-배석	○	
<b>회의주제 및 안건</b>	<b>1. 회의</b>					
	<b>1) 공유사항</b> (1) 인사 및 여성가족 정책, 행사 등 공유 <b>2) 안건논의</b> (1) 2017년도 연차별시행결과 우수 포상 공유 (2) 2019년 여성가족분과 민관협력 공동사업 활동 논의 - 3강 페미니즘과 문화 강사 섭외 관련 <b>3) 차기회의 일정</b>					
<b>회의결과</b>	<b>2. 교육 : 페미니즘 2강 에코페미니즘 (김신효정)</b>					
	<b>1. 회의</b> <b>1) 공유사항</b> (1) 인사 및 여성가족 정책, 행사 등 공유 <b>2) 안건논의</b> (1) 2017년도 연차별시행결과 우수 포상 공유 : 향후 논의 결정 (2) 2019년 여성가족분과 민관협력 공동사업 활동 논의 - 3강 페미니즘과 문화 강사 섭외 관련 추천 : 김미선(명동아가씨 저자)					
<b>2. 교육 : 에코 페미니즘 (김신효정)</b>						
○ 에코 페미니스트로의 여정 - 덜 소비하고 더 존재하라, 괜찮지 않은 세상 괜찮게 살고있습니다, 씨앗 할머니의 비밀 * 나는 페미니스트인가? 그렇다면 에코페미니스트인가? * 페미니즘은 무엇인가? N개의 페미니즘이 있다. 차별, 억압, 폭력의 문제를 변화시키기 위						

	<p>한 운동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생태위기의 시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후변화, 미세먼지, 플라스틱 환경오염, 핵오염, 글랏세이트 음식오염, 유전자 조작식품, 생태계 멸종- 영국 기후변화방지운동 ‘멸종저항’ 단체 시위</li> <li>- 지구에는 8백만종의 생명이 살고 있음. 현재 1백만종 멸종 위기</li> </ul> </li> <li>○ 2004년 12월26일 츠나미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왜 페미니즘에서 환경문제를 이야기하나?</li> <li>- 아시아, 동부아프리카 12개지역 22만명 사망, 사망자의 80%가 여성-여성의 옷차림이 쉽지 않음. 나무 오르기도 쉽지 않음 → 여성으로 길러지는 사회</li> <li>- 왜 해결이 안되는가?</li> <li>- 에코페미니즘 : 자연은 끊임없이 변화, 자연은 이성 중심으로 설명이 되는가? 인간과 자연의 위계는 없다, 인간도 자연의 일부다. 자연이란 무엇인가를 질문</li> <li>* 젠더gender란? 생물학적 성(남,여)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성</li> </ul> </li> <li>○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환경문제에는 성별이 있는가? 있다</li> <li>- 여성은 생명을 살리고 보살피는 존재인가?</li> <li>- 왜 여성만이 모성과 돌봄을 강요받는가?</li> </ul> </li> <li>○ 내가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? 페미니즘 인식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어떤것도 객관적이지 않다, 중립적이지 않다</li> <li>- 인간은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, 한계도 많으며 알지 못하는 것, 모르는 것이 더 많다</li> <li>- 지식은 정보, 사실, 이론의 체계로서 모든 지식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며,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발전되어 왔기에 인식은 삶의 경험에 토대한다</li> <li>- 여성이기 때문에, 한국인이기 때문에... 위치성에 따라 보는 시각은 다르다</li> </ul> </li> <li>○ 계산되지 않는 생태위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숨겨진 지출 가운데 환경 파괴로 창출된 새로운 부담들과 여성이 혹독하게 치러야하는 지출이다 (폴브레, 2007)</li> <li>- 생산을 위한 파괴? 단기적인 경제발전? 다음세대로부터 훔쳐쓰는 미래?</li> </ul> </li> <li>□ 전지구적 자본주의와 가부장제</li> <li>○ 종자주권, 식량주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몬산토 씨앗 종자권 23% 점유, 세계 3대 종자회사(몬산토, 듀퐁, 신젠타) 총 47% 종자시장 차지</li> <li>- 여성은 세계적으로 종자전문가, 육종가로서 생물다양성을 지켜옴. 그러나 여성의 일과 여성의 지식은 인식되지 않음</li> </ul> </li> <li>○ 한국인의 밥상은 멸종위기</li> </ul>
--	--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농민의 소멸 : 농업인구 감소, 고령화, 여성화 / 농가소득 1004만원 농가부채 638만원(2017 기준) / 토지 수탈 70%의 농지가 비농민 소유</li> <li>- 빈곤의 여성화 : 농촌인구 절반이상 여성, 고령 여성농민이 복지수혜자가 아닌 생산 주체</li> </ul> <p>○ 하이힐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?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장식 축산(여성노동) -&gt; 가죽공장 (어린여성 노동자) -&gt; 1세계 디자이너의 손을 거쳐</li> <li>- 부드러운 송치가죽을 얻기 위해 태어난지 12시간이 채 되지않은 송아지는 산채로 가죽이 벗겨짐. 오리털- 살아있는 오리의 솜털</li> <li>* 동물가죽이 어떻게 생산되는지를 안다면, 우리가 매일 먹는 치킨이 어떻게 생산되는지를 안다면 같은 마음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</li> <li>- 노동자에게는 실제 판매 가격의 1/10도 안되는 저임금</li> </ul> <p>○ 화장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?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평균 미국 여성은 매일 12가지, 168개 화학물질 성분</li> <li>- 호르몬을 교란하는 성분</li> </ul> <p>○ 모두를 위한 월경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안전한 생리대 이슈 확산. 200개의 화학물질</li> <li>- 월경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, 당장 어떤 생리대를 써야할까? 안전도 돈으로 사야 하나? 대안조차 선택할 수 없다, 장애여성과 생리</li> <li>- 더 좋은 제품을 산다는 것,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. 선택권이 없는 여성이 많다</li> <li>- 여성의 몸과 노동의 자유, 돌봄 : 엄마처럼 살기 싫어서 모두 아빠가 되는 사회</li> </ul> <p>○ 전지구적 자본주의 시스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물건의 소비를 미덕으로 여기는 자본주의 시스템,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는 자원의 추출, 생산, 유통과정을 거치며 거대한 거대한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, 불안정노동과 노동조건이 악화를 야기함</li> <li>- 1세계와 3세계간의 분업구조, 불공정거래는 부의 양극화를 초래</li> <li>- 경제, 환경, 노동, 정치, 행정이 분절적인 분야가 아니라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음</li> </ul> <p>○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사람이 제일 위, 에코페미니즘은 위계가 없다</li> </ul> <p>○ 성장의 한계와 페미니즘의 미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글로벌 생태위기, 인간이 만들어낸 위기</li> <li>- “여성과 남성이 모두 평등하게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많은 GMO를 먹는 것이 페미니즘이 원했던 해방인가?”</li> </ul> <p>□ 에코/페미니즘 이란?</p> <p>○ 여성?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가부장제 사회는 여성을 이분화 시켜옴</li> <li>- 정체성을 포기하고 스스로 ‘인간’으로 명명함. 성차별은 스스로가 ‘여성’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경험함</li> </ul>
--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결국 경험이란 의식화와 연관되어 있음</li> <li>○ 여성주의들? 페미니즘들?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여성도 인간으로서 정치, 경제, 사회적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신념</li> <li>- 성차별적 억압을 종식시키는 투쟁</li> <li>- 여성주의는 억압, 차별, 착취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지 않음</li> </ul> </li> <li>○ 페미니즘은 다양하다</li> <li>○ 에코 페미니즘에 대한 편견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모성, 어머니 대지, 여신, 시골,</li> </ul> </li> <li>○ 이효리와 할머니의 차이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이효리처럼 살고 싶지만 할머니처럼 살고싶지 않다?</li> <li>- 농촌에 사는 여성이지만 연령고 계급에서 차이</li> <li>- 농업노동의 목적과 의미 차이</li> <li>- 패셔너블한 ‘에코’ 와 하고싶지 않은 ‘에코’ . 경합하고 모순되는 ‘여성과 에코’</li> <li>→ 에코페미니즘의 에코는, 도시에서의, 2019년의 에코는 달라질 수 있다</li> </ul> </li> <li>○ 에코페미니즘?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소비와 노동을 다르게 재편하기</li> <li>- 화폐 중심의 경제의 틈새와 균열만들기 -&gt; 모든 것을 곤환한다고 생각하지만, 받으며 살고 있다. 아이, 이웃의 돌봄</li> <li>- 여성의 재생산 노동에 대해 다시 보기</li> <li>- 남성/여성 이분법과 인간/자연 이분법 비판 -&gt; 인간중심주의 비판</li> </ul> </li> <li>○ 에코페미니즘의 등장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970년대 : 발전주의, 산업주의 비판으로서 반핵, 반전, 환경, 레즈비언 운동진영에서 태동 생태학적 혁명이란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, 특히 여성과 남성 사이의 성별관계를 재구성하는 것을 의미</li> <li>- 1980년대 : 철학, 신학, 종교학에서 활발한 논의</li> <li>- 1990년대 : 서구화와 경제 근대화 과정에서 젠더 불평등</li> </ul> </li> <li>○ 에코페미니즘과 발전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인간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화폐가치로만 측정해왔던 기존의 발전 패러다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것을 제안</li> <li>- GDP 신화 깨부수기 : GDP는 우리가 가진 삶의 문화와 다양성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</li> </ul> </li> <li>□ 에코페미니즘으로 경제 다시보기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수면 밑에서의 경제활동 : 60%이상의 여성의 더 많은 활동이 수면밑에 있는 활동- 돌봄, 가사 등. 우리나라 한국 여성 경제활동 50%선</li> </ul> </li> </ul>
--	--

○ 가부장제와 여성노동의 위계화

상	눈에 보이는 화폐가치(장식)
↑	여성노동의 가정주부화,
↓	돌봄가치의 비가시화
하	자연 환경의 타자화

○ 여성노동의 가정주부화

- ‘나는 엄마처럼 살지않을 거야’ : 여성들의 가정내 노동은 여성이라면 당연히 해야하는 일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
- 경제활동인구로부터 원천 배제, 모든 일을 하든 돌보는 자의 노동으로 다루어짐
- ‘돌봄’ : 개인이 떠 맡아오던 일을 이제 사회가 해야할 일

○ 탈성장

- 성장중독사회
- 소비와 노동을 다르게 하고 덜 하면서도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?
- 화폐로 잡히는 노동만이 생산적인가?
- 젠더 정의, 생태 정의가 사회의 목표가 될 수 있는가?

○ 자율노동, 타율노동, 자활노동

- 자율노동 : 자발적인 활동, 지역사회를 살리고 인간관계를 만들어 사회를 유지
- 자활노동 : 살림처럼 생활 유지를 위한 활동, 인간의 생명과 성장을 위한 모든 노동

○ 우리만의 경제 만들기! 여성주의 대안경제

- 가난한 여성들뿐 만 아니라 소외된 약자를 위한 경제, 같이 잘 사는 경제
- 도보경제, 돌봄경제, 나눔경제, 삶의 경제, 정보 경제, 참을성있는 경제(출발점이 다른 사람을 기다려주는 경제)..

○ 새로운 실험과 움직임

- 사회적 금융, 온라인플랫폼에 기반한 사회운동, 협동조합, 대안주거 등

○ 리더십의 전환 : 에코페미니즘

- 보살핌의 사회화, 정치화, 정책화
- 일과 노동의 재구성 : 전통적 노동자의 종말, 비정규직이 이끄는 사회, 일보다 삶이 우선되는 사회
- 대안공간의 확장 : 도시/농촌에서의 자급적인 삶, 초국적 기업과 자본에 대항하는 지역적/초국적 연대
- 여성주의 대안경제 실험과 실천
- 현재의 생태 위기와 재생산의 위기에 페미니즘은 어떻게 대응할것인가?
- 일상에 기반한 좀 더 삶에 뿌리내린 페미니즘이란 무엇인가?

○ 소감 나눔

- 대안적 공동체, 대안적 소비, 삶에 대한 실제적 사례 질의 : 마르쉐, 언니네 텃밭(꾸러미 직거래), GMO단체 반대 농민연대활동- 토종씨앗 운동,

	<p>: 그루-여성환경연대에서 시작해서 독립체로, 공정무역 유기농면 옷제작하여 판매        : 청년 귀농자 게스트하우스-농부를 배우고 일하고 살 수 있는 체계        → 지속가능성의 문제</p> <p>- 우리가 상상했던 에코페미니즘? 에코라고 했을 때 친환경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처음 들을때는 이해가 잘 가지않았으나 후반부 여성주의 대안경제라는 말을 듣고 이해가 되었음.        → 한국에 그동안 에코페미니즘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음. 여성주의대안경제도 방향성이 맞고, 에코페미니즘에 대한 밑그림을 그렸다고 생각하는 것 만으로도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. 관심있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각 세부적인 이야기들은 더 깊게 들어가 에코페미니즘이 일상과 연결될 수 있는 고리를 찾기 바람</p> <p>- 에코페미니즘을 실천하는 사회는?        → 도시에서도 소비를 줄이고 같이 관계를 만들어 자급할 수 있다. 소비를 통해 해결했던 모든 것을 돌리자, 도시텃밭에서도 가능, 페미니즘도 생산주의가 강한데-일을 많이하고 있음- 긴 호흡으로 유지하기 위한 삶의 성찰이 필요함. 시민사회의 생산주의도 비판 필요. 지속가능한 운동으로.</p>
--	---